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작품125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125

정영목
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2008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다. 송년 음악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으며 거기에 베토벤 심포니 9번이 있다면 더욱 뜻있는 음악회가 되리라... 필자는 위대한 걸작 베토벤 심포니 9번으로 송년을 준비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천재성을 집중 하도록 도왔으며 시대의 무미건조함이나 범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말은 그대로 베토벤의 일면을 똑바로 지적한 명언이다.

만약 그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귀머거리가 되는 숙명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교향곡 제9번」 같은 걸작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그리고 강한 호소력으로 모든 사람을 압도적인 감동 속에 이끌고 들어가는 음악 그것이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이다“고 로맹 롤랑 (Romain Rolland)은 말한다.

「교향곡 제9번」은 그의 다른 여덟 개의 교향곡과는 달리 정상에 올라 과거의 모든 것과 그 생애의

전집을 부감하는 회고이기도 하며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고전주의의 완성이자 낭만주의의 문을 여는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베토벤이 항상 공감하고 애독했던 독일의 시인 실러(Friedrich Schillers)의 장시 <환희의 노래>에 의한 합창 불임을 가진 교향곡이며, 네 사람의 독창과 대합창이 교향곡에 사용된 최초의 음악이다.

베토벤은 1793년 고향인 본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곡의 작품을 구상해 왔는데, 비로소 작곡의 모습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이 1812년 경이었으며 1822년에 이르러 구체화된 것이다. 1823년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작곡에 몰두하여 이듬해인 1824년 2월에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다. 구상하기 시작한 지 무려 31년만이었다.

그가 교향곡 제9번을 완성하기 5, 6년 전부터 생애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은 시기였다. 귀병은 차츰 더 심해지고 남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필기장을 써야했으며 거기에 또 폐렴, 황달, 눈병, 위장 장애까지 앓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었다. 실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람의 가장 큰 특색인 불행과 어렵고 힘든 처지를 참고 견디며 이겨 내는 일”이라고 그의 수첩에 적은대로 오랜 세월을 이기면서 환희를 찾아 마침내 역사상 거대한 인류에의 이상을 이처럼 감동적인 노래로 승화시키고 말았다.

초연은 1824년 5월 7일 오후 7시부터 빈의 케른트나토아 극장에서 거행되었다. 베토벤 57년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적인 날이다. 이 날의 프로그램은 1. 서곡 ‘헌당식’ 2.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장엄 미사) 3. ‘교향곡 제9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향곡 제9번을 연주 할 때는 지휘자 움라우후외에 베토벤도 지휘봉을 잡고 지휘대에 섰다. 베토벤은 공연히 허공에 대고 지휘봉을 휘저을 뿐이었다. 연주는 무사히 끝났으며 이 위대한 작품에 청중은 열광적인 박수로 응했다. 그러나 그 떠나갈 듯 요란한 박수 소리가 베토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청중에게 등을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얘기인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을 흘렸다. 보다 못한 엘토 가수 옹거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청중 쪽으로 돌려 세웠으며 베토벤은 떨리는 몸으로 청중의 감동을 자기 것으로 받아 들였다. 박수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제 1악장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d단조 2/2박자 소나타 형식

대 우주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침통한 영혼의 울부짖음이기도하다. 소나타 형식이며 비극을 내포한 장려한 악장이다.

첫 16마디 동안 d단조의 딸림화음 중 3음을 생략한 화음으로 공허하듯 진행하며 연주하는 사이에 제 1주제의 주요 모티브가 잠깐씩 등장하다가 뒤로 갈수록 모티브가 심화되어 크레센도로 고조되어 등장한다. 제 1주제가 다시 한번 제시되고 후반은 주제의 일부 모티브의 단편들이 이어지며 새로운 모티브를 도입하고 제 2주제로 이어진다. 제 2주제는 1주제와는 달리 즐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이어지는 부분 역시 대체로 앞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때때로 1주제의 부분들을 섞어서 발전부로 진행한다.

고전적 소나타 형식과는 달리 제시부의 반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라면 악장이 너무 길게 되는 것을 피할 의도가 있고 또한 주제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부는 세 부분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제 1부분은 제 1주제에 의한 모티브적 발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팀파니의 38마디에 걸친 포르티시모 트레몰로와 관악의 거센 포효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재현부(301마디)는 주제의 형태나 연결방법이 제시부와 상당히 달라져 있다. 여기에서 제 2주제는 강조로 재현된다. 코다는 마치 제 2의 발전부를 시작하려는 듯이 제 1주제, 푸가의 주제들을 화려하게 등장하고 목관의 아름다운 트릴은 가슴을 깊게 적시며 진행한다. 투티로 클라이맥스에 도달 한 후 새로운 장르를 확립하려는 듯 갑자기 반음계적 상행을 두 번 시도하고 마침내 제 1주제를 유니즌으로 하여 포

르테시모로 힘차고 당당하게 악장을 끝낸다.

**제 2악장 Molto vivace d단조
3/4박자 스케르초**

스케르초이며 몰토 비바체의 템포가 빠른 악장이다. 현의 강한 attack과 팀파니의 타격으로 시작하여 “절망에 쫓기며 새로운 행복을 움켜잡으려고 애쓰는”(바그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고전교향곡의 형식으로 보면 2악장 Molto Vivace 과 3악장 Adagio molto e cantabile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이유에 대해서 베토벤은 말한 바가 없다). 또 2악장의 특징으로는 속도가 극히 빠르고 팀파니가 평상시 5도가 아닌 F음의 옥타브로 조율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이것은 스케르초 시작 부분에서의 푸가 첫 음들의 움직임에 대한 모방을 하기 위해서이다. 푸가 악구는 3도 음정 단위들을 순서를 바꿔가며 채워 넣은 것 들을 바이올린이 피아니시모로 제시하고 중간 부분에서 목관악기들이 부가음을 연주해나간다. 트리오가 나타나서 2/2박자로 바뀌며 프레스토로 연주된다. 3부 형식을 유지하며 주선율은 호른에 의해 연주되고 이어서 바순에 의한 대선율이 결합하여 대위법적으로 선명하게 발전해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제 3악장 Adagio molto e cantabile
B-flat장조 4/4박자**

9번 교향곡의 정서적인 클라이맥스이다. 관이 펼치는 고요한 화음의 움직임과 사색적인 선율들이 펼쳐지고 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변주적 병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두 마디의 도입부를 지나면 첫 주제가 바이올린에 의해 시작되고 목관이 그것을 반향한다. 두 번째 주제는 장 3도 위의 조성인 D장조로 바뀌며 템포는 Andante moderato로, 박자는 3/4로 바뀌어 진다. 당김음과 기쁨 있는 무곡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가지 주제가 반복, 변주, 전조를 하며 코다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낭만적인 뉘앙스에 도취한 듯 끝난다.

제 4악장 Presto D장조 4/4, 3/2.

이 곡은 베토벤 예술의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고금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의 하나이다.

제4악장은 먼저 앞의 3악장에 대한 회상하듯 투쟁과 체험과 극복이 나타나고 있다. 저음 현악기의 레시타티브와 1.2주제에서 교체하며 나오다가 제 3악장의 선율이 회상되듯 하고 합창의 모티브가 목관에 나타나고 나서 드디어 저음 현악기에서 환희의 선율이 시작된다. 그리고는 “환희에 부치는 노래”의 주제를 콘트라베이스가 노래한다. 교향곡에 합창을 넣은 것은 베토벤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넣은 모든 악기를 동원한 조화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4악장에서 이곡의 핵심주제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인류의 평화, 만물의 조화로 풀어내고 있다.

바리톤과 4중창 합창이 어우러져 힘차게 노래한다. “오 친구여...환희여, 신들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한 사람의 친구와 벗이 되는 큰 행운을 얻은 자는...기쁨의 목소리를 크게 울려라...” 합창이 끝나면 표정이 바뀌어 터키 행진곡풍의 리듬이 시작된다.

테너가 “하늘의 드넓은 길을 지나 태양이 가까이 비행하듯이, 형제여, 그대로 그대의 길을 가라. 가까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웅처럼...” 하고 노래하면 합창이 뒤따라 ‘환희의 주제’로 뒤를 잇는다.

그리고는 곡이 안단테 마에스토소로 바뀌며 엄격하고 숭고한 찬가

“껴안으라, 수많은 사람들이여, 이 입맞춤을 전 세계에 베풀어 주자.

형제여, 별들의 막사위에 분명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를 남성 합창으로 노래하며 이어간다.

‘환희’를 소리 높이 부르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대 서사시는 이윽고 끝이 난다.

로맹 롤랑은 “베토벤을 가리켜 그는 이제 승리자였다. 그는 인간의 웅출함을 정복한 승리자였다. 자기 자신의 운명과 비애를 극복한 승리자였다”고 말했다.

정 영 목

필자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유난히 좋아한다. 그것은 인간의 예술적 경지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준 음악의 감정 세계를 한없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까!

이렇게 베토벤은 오늘날 인류의 정서를 이끌어가는 숭고한 서정시를 남겼다.



〈저 자〉

정 영 목
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